

뉴스 초점

동교동계, 4·29 재보선 새정치 지원 반대 왜?

평소에는 “脫호남” 선거때 “도와달라”

대북송금 특검 뿌리깊은 반감
호남민심 文대표 실망감 반영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지원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동교동계는 호남과 구 민주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신 그룹인 친노 세력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당내 주류는 실질적으로 친노 그룹이지만 DJ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가 당의 뿌리인 호남 민심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동교동계가 지난달 31일 국립현충원의 DJ 묘역 참배를 마친 뒤, 권노갑 상임고문의 새정치연합 후보 지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5일 오전 예정됐던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간담회가 무산된 것은 임채정 전 의장 등의 일정 문제가 있었지만 동교동계 인사들의 강력한 요구로 권 상임고문이 모임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동교동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 친노 세력과 ‘일선’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로도 읽히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교동계가 그동안 아권 현안에 일정 거리를 두면서 당내 친노 세력에 대해 비판적 지지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최근 움직임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친노 그룹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창당과 대북송금 특검에서 시작된 불신은 이후에도 총선 공천 및 당

내 역학구조 등을 둘러싸고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호남을 찾다가 선거 이후에는 ‘탈 호남’을 외치는 친노 세력에 대한 배심감도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전당대회 대표 경선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을 도운 동교동계와 문재인 의원을 지원한 친노 그룹과의 충돌도 최근의 사태를 키운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관악을 후보 경선에서도 동교동계가 지원한 김희철 후보가 친노 주자인 정태호 후보에 여론조사에서 간발의 차로 석패,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동교동계 움직임의 근간은 호남 민심에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이나 정권 창출에 실패하고도 뚜렷한 혁신이나 비전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과 친노 그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실망감과 반감이 깊고 크다는 것이다. 지난 2·8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내 최대 계파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에 맞서 호남 주자인 박지원 의원이 초박빙 선전을 펼친 원동력이 됐으며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주승용 의원의 1위 당선도 이끌어냈다.

정동영, 전정배 전 의원의 출마도 반(反) 새정치연합 기류를 보이고 있는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평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동교동계가 호남 민심을 토대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노 그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4·29 보궐선거에서 단 한 곳의 승리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문 대표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오는 7일 국립현충원의 DJ 묘소 참배를 통해 동교동계 인사들에게 4·29 보궐선거 지원을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동교동계도 적전 분열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문 대표의 요청을 명분으로 새정치연합 후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동교동계와 친노 그룹의 갈등이 수습된다 해도 호남 민심이 과연 이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여서 4·29 보궐선거는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선 KTX 불안해 못타겠다”

첫날부터 청테이프 붙이고 아찔 운행... 원인은 “제작 결함”

4일엔 신호기 오작동 하천 다리 위 ‘스톱’... 승객 불신 증폭

호남선 KTX가 지난 2일 개통 첫날부터 워셔액 주입구 잠금장치가 파손된 채 운행(광주일보 3일자 1면)된데 이어 잇따라 장애가 발생해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개통 일주일도 안돼 제작 결함과 단전 등

으로 인한 운행차질이 빚어지면서 고속철의 근본적인 안전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5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 인근 다리 위에서 서

울 용산에서 출발, 광주 승정역으로 가던 KTX 511호 열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차량지상신호수신장치가 순간적으로 오작동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열차는 하천 다리 위에서 3분가량 정지돼 있다가 시스템 재부팅 뒤에야 운행을 재개했다. 400여명의 승객들은 하천 다리 위에서 영문도 모른 채 멈춰서는 바람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운행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측은 사고 하루 뒤 “고속선 신호

장치 운행 구간에서 일반선 신호 장치가 신호를 잘못 인식해 비상 제동한 ‘제작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제작 결함 사고 뿐 아니라 단전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4일 오후 3시1분께 호남고속선 익산~공주역 사이 용산 방향 상행선 5.3km 구간이 단전되면서 목포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으로 향하던 KTX가 멈춰선 뒤 후진, 다른 선로를 이용해 운행했다.

이날 사고는 까치집 때문에 빚어진 사고로, 무려 1시간 30분 가까이 단전 사태가 이어지면서 KTX 3개 열차 운행이 8분~33분 정도 지연됐다.

이에 앞서 개통 첫날인 지난 2일 오후 12시5분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광주승정역으로 향하던 호남선 KTX 515호 열차가 출발한 지 16분 만에 워셔액 주입구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덮개가 열차 역방향으로 쪼개지면서 갑자기 멈춰섰다. 광명역을 지나 오송역으로 향하던 열차는 정차한 지 7분 만에 운행을 재개했지만 최고 시속 300km의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190~230km로 저속 운행해 승객들의 항의가 빚발쳤다.

KTX는 익산역에서 정차한 뒤 가로 90cm·세로 90cm 크기의 주입구 덮개를 청테이프 고정된 뒤 다시 출발했으나 청테이프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불안감을 더했다. 또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지난달 초 호남선 등에 있던 신형 KTX 3대 변압기 폭발 사고까지 거론되는 등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호남선 KTX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코레일 안팎에서는 호남선 KTX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 대책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운천저수지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5일 오후 벚꽃이 만개한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에 형형색색의 음악분수가 어우러지면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U대회 준비상황 최종 점검

FISU, 경기장 등 19개 분야... 조직위 준비 만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7월3~14일) 개막을 88일 앞두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광주U대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대회 개최 전 마지막 점검으로 선수촌, 숙박, 등록, 출입국 등 19개 기능분야와 신설경기장, 선수촌 등 시설관련 준비사항을 강도 높게 살펴볼 것으로 예정이어서 광주U대회 조직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5일 “FISU

최고의결기구인 FISU감독위원회(CSU·Universiade Supervision Committee)가 6일부터 8일까지 대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다.

케말 타메르(FISU집행위원·터키) 위원장이 이끄는 CSU는 FISU집행위원과 경기 및 선수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최종점검은 오는 11~15일 북한 등이 참석하는 각국 선수단 대표단장(HoD) 회의(대진표 추첨, 숙소, 경기장 체크 등)

를 앞두고 실시돼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CSU의 점검을 앞두고 세 차례 내부 사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준비한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저비용 경제대회를 목표로 국제 대회 사상 유례없는 최소 비용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광주U대회 조직위 내부에선 최근 광주시의 난색으로 대회 개최의 필수요소인 대회 운영비 111억원마저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금 난에 따른 부실대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개막 6연승
“KIA 虎”

▶ 관련기사 20면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표시는 인근 중추도시생활권에 중핵으로 포함된 시·군

지역행복 생활권, 삶의 질을 높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받는
HOPE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 지원

Happiness
(주민행복제고)

Opportunity
(균등한 기회제공)

HOPE project

Partnership
(시민의 참여와 협동)

Everywhere
(어디든 어디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

- ☑ 이웃한 시·군이 자율적으로 63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 ☑ 삶의 질 향상 위한 1,475건의 생활권 사업 추진
- ☑ 농촌오지마을, 달동네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